

#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소개

## A Current Status of Recycled Aggregate Quality Certification

글 | 심종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Shim, Jong-Woo / Building & Urban Research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Daewha-dong, Ilsan-gu, Goyang-si, Kyeonggi-do, 411-712, Korea)

### 1. 개요

2003년 12월 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제35조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6조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건폐법에 근거하여 본원에서는 2007년 1월부터 국토해양부로부터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시작하였으며, 벌써 2년 5개월이 경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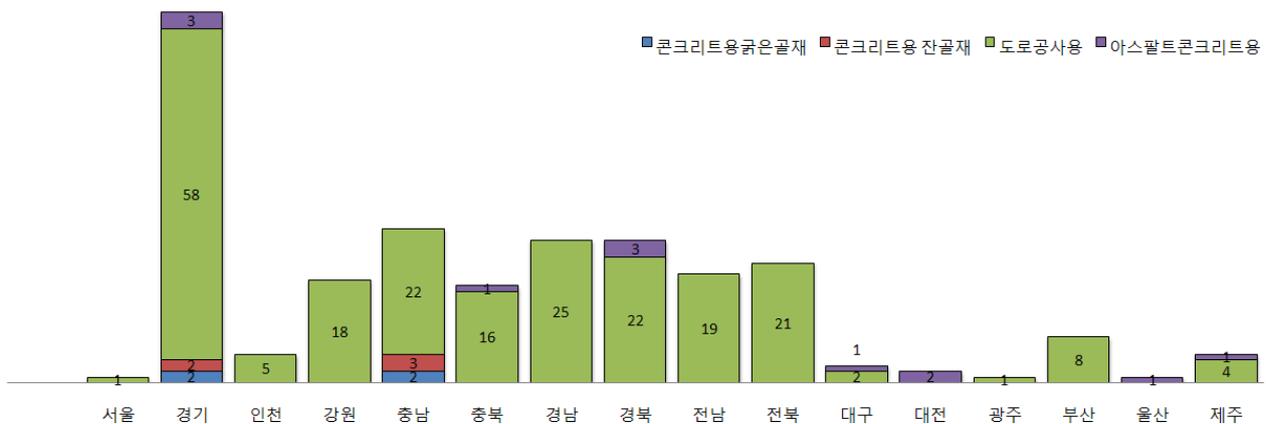
이에 본고에서는 인증제도의 시행이후 그간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부여에 대한 현황분석과 향후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지역별 인증현황

2009년 5월말 현재, <표 1>과 같이 243개 업체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취득하였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나 잔골재의 품질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경우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이미 획득하였으므로 업체수로만 보면 모두 234개 업체가 인증을 부여받은 셈이다.

이는 전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재활용 신고업체인 대상업체를 400여개로 판단하였을 때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서 2009년 5월말 현재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의 추이로 보아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경우, 대략 포화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65개의 인증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충남지역으로서 27개의 인증이 부여되었다.



[그림 1] 지역별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 E-mail : shimjw@kict.re.kr

<표 1>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용도	굵은골재	1	2	1	4
	잔골재	0	3	2	5
도로공사용		27	160	35	222
아스팔트콘크리트용		4	4	4	12
계		32	169	42	24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인증도 경기와 충남지역에만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발주물량이 많은 경기지역 이외에 충남지역에 이렇게 많은 인증이 부여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첫번째는 지리적인 영향으로서, 2억원 이상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전국입찰이 가능하므로 바다 등의 지리적 제한요소를 가지고 있는 타업체보다는 입찰참여를 통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기 쉽기 때문에 입찰시 배점을 받을 수 있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골재 자원을 요구하는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증부여후 조사한 사후관리시 파악한 순환골재 납품공급실적에서도 나타나 있다.

아울러, 특별시 또는 광역시보다는 주변 지역의 인증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특성상 많은 폐기물의 야적 또는 골재 보관장소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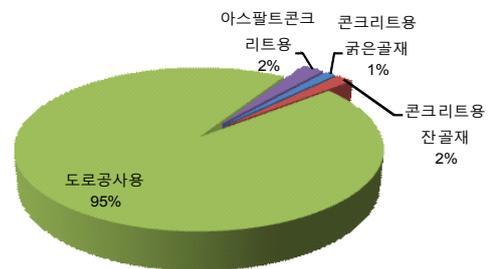
### 3. 연도별 인증현황

2007년 이후 연도별로 부여된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2007년도 총 순환골재 품질인증 부여 건수는 32건이다. 이 중에서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약 84%를 차지하였다. 2007년도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시작된 해로서 전체적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 및 취득건수는 많지 않았으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중 규모나 시설이 큰 업체들의 신청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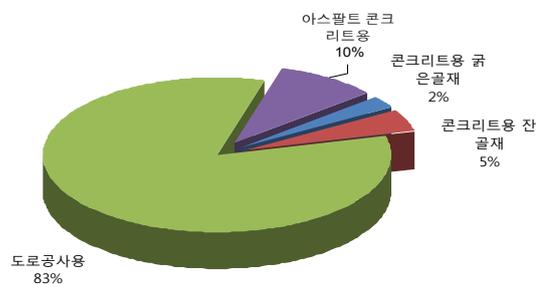
2008년도의 총 순환골재 품질인증 부여건수는 169개이다. 이 중에서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5%이다.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에 집중되었던 원인은 2008년 7월부터 환경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반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보다는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 2007년도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그림 3] 2008년도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그림 4] 2009년도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2009년도 5월말 현재까지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부여건 수는 42개이며 이 중에서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3%이다. 올해의 인증신청시 특이한 사항은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인증취득의 목적이 다변화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2008년도에 입찰에 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도로공사용순환골재 품질인증과는 달리, 해당업체의 처한 사정 즉, 실질적인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4. 맺음말

2007년도에 시작한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작된 건폐법의 근본적인 목표에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인증받은 업체에 대하여 인증 부여 후 실시한 사후관리 및 운영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인증받은 순환골재임에도 불구하고 성토·복토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특히 순환골재의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순환골재 실수요자들에 대한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순환골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순환골재 의무활용 비율 증대, 순환골재의 사용가능한 용도 확대 등을 통한 순환골재 품질기준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